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김창국·박상증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5층 전화: 723-5300 / 팩스: 723-5055
천리안-호텔 PSPD, 나무나라유니텔: 참여연대 / 전자우편: pspd@soback.kornet.nm.kr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anet.org/~pspd/>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기자
발신 참여연대 (담당: 시민감시국장 김형완 : 723-5302)
제목 노름판 벌인 국회의원에 대한 규탄 집회
날짜 1998. 3. 16. (총1쪽)

보도의뢰

참여연대, 노름판 벌인 국회의원 규탄집회

일시: 1998년 3월 16일 (월) 11:30 장소: 한나라당 당사 앞

1. 참여연대는 **오늘(3월 16일, 월) 11:30에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국회에서 회기 중에 노름판을 벌인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및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2. 오늘의 경제위기의 상당한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이 외환위기로 인한 국가파산의 숨가쁜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기중에 노름판을 벌였다는 데 대한 국민의 분노를 넘어선 허탈감을 표시하고, 해당의원들에 대해 한나라당이 제명 및 출당의 중징계 조치를 할 것과 이들 스스로의 의원직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다.
3. 참여연대는 이미 국회의장과 소속 정당인 한나라당의 조순총재에게 이와 관련한 서한을 지난 3월 12일 발송했다.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해당의원들에게 납득할 만한 수준의 조처가 내려지지 않을 경우 사법당국에 해당의원들을 '상습도박의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포함하는 보다 강력한 대응을 계속 해나갈 예정이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김창국·박상증

집 회: 노름판 벌인 국회의원 처벌 및 사퇴 촉구

일 시: 1998년 3월 16일 (월) 11:30 - 12:00

장 소: 한나라당 당사앞

목적: 오늘의 경제위기의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정치인이, 그리고 누구보다도 국민의 고통현장에 함께 있어야 할 국회의원이 회기중에 노름판을 벌였다는 데에 분노할 수 밖에 없으며, 국회에서는 즉각 국회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의원을 엄중히 징계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한나라당에서는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의원들의 제명 및 출당의 중징계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요구: 참여연대는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하며, 동시에 해당의원들에게 납득할 만한 수준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 경우 사법당국에 해당의원들을 '상습도박의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포함하는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다.

■ 집회순서

사회: 김형완

집회취지설명 김형완

시민발언

성명서 낭독 박성배

구호제창 다같이

* 유권자는 분노한다.

나라경제 거덜내고 고스톱이 웬말이나
파렴치한 도박꾼들, 국민혈세 반납하라
경제파탄 장본인이 상습도박 웬말이나
노름판 벌인 국회의원 자진 사퇴하라
도박의원, 한나라당은 국민앞에 사죄하라
한나라당은 노름의원 출당, 제명하라
상습도박꾼에 맡긴 국정, 도박으로 거덜난다
유권자가 부끄럽다, 도박의원 자폭하라
(국민에겐 고통전담, 국회의원은 상습도박) (마작국회, 고스톱위원회, 도박의원 영
구 추방)